

1. [정답] ①

[정답 해설]

공자는 덕치를 주장하였지만 법을 부정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② 공자는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려면 먼저 통치자가 수양을 통해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노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④ 노자는 백성을 무지·무욕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⑤ 도의 의미는 다르지만, 공자와 노자 모두 사욕을 버리고 도에 따라 살 것을 주장하였다.

2. [정답] ㄱ, ㄴ

[정답 해설]

ㄱ :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

ㄴ : 칸트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은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 곧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라고 하였다. 밀에게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은 최대의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이다.

[오답 해설]

ㄷ. 밀은 고급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만족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ㄹ. 칸트는 자신의 행복에 마음을 쓰고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덕적 삶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 3. [정답] ③

[정답 해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행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분업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켰지만 노동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마르크스는 기술적 분업의 심화로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예속이 더 심화된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① 칼뱅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업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② 칼뱅에 따르면 모든 직업은 신의 소명으로서 소중한 것이다. 칼뱅은 신의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신이 보시기에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④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적 소유가 노동의 소외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가 폐지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분업이 철폐되고, 각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나 자신을 도야함으로써 자신의 자질을 다방면으로 발전시키는 전면적인 자아실현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⑤ 칼뱅은 직업 노동을 통해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보았으며,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를 욕구하는 노동을 통해 자아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4. [정답] ①

[정답 해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의무의 근거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있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다.

③ 로크는 묵시적 동의를 한 사람도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았다.

④ 로크는 평상시에는 입법부가 입법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전체는 부분보다 필연적으로 우선하므로 국가는 본성상 개인에 우선한다.

5. [정답] ㄱ, ㄷ, ㄹ

[정답 해설]

ㄱ. 칸트는 긍정의 대답을, 베카리아와 벤담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베카리아나 벤담과 달리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았다.

ㄹ. 벤담에 따르면 형벌의 크기는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

[오답 해설]

ㄴ.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형벌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갖게 된다면 형벌은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긍정할 것이다.

6. [정답] ②

[정답 해설]

노직은 정형적 원리가 개인의 소유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직은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이 정형적 원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① 롤스는 타고난 재능의 차이 그 자체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타고난 재능의 차이를 사회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불공정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노직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비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왈처는 사회적 가치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다고 보았다.

⑤ 왈처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혹은 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더욱이 이러한 차이가 각각의 분배 영역이 지닌 특정한 기준에 따라 생겨난 것일 경우 독점은 정당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하였다.

7. [정답] ④

[정답 해설]

싱어는 다수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법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이라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을 넘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인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 ③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이익과 손해의 경중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롤스와 싱어 모두 위법 행위인 시민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 [정답] ①

[정답 해설]

엘리아데는 절대적 실재가 이 세계를 초월한 존재라고 보았다.

[오답 해설]

- ②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은 세속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③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 분리되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현현함으로써 사물은 어떤 전혀 다른 것이 된다고 보았다.
- 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스럽지 않은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9. [정답] ㄷ, ㄹ

[정답 해설]

ㄷ. 테일러가 제시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에 해당한다. 칸트와 레건은 모두 생명체에 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ㄹ.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의무를, 테일러는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의무를 인정하였다. 칸트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ㄱ. 레건이 지지할 입장에 해당하므로 틀린 진술이다.

ㄴ. 칸트, 레건, 테일러 모두 긍정할 진술이다.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레건만이 아니라 칸트와 테일러도 해당한다.

10. [정답] ④

[정답 해설]

싱어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문제는 공적인 정의 개념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장기적인 목표보다도 훨씬 급박한 문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롤스는 한 나라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라는 문제에서 결정적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이지, 그 나라의 자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 자원 배분의 우연성은 어떠한 곤란함도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조가 국가 간 자원 배분의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였다.

②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원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싱어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싱어에 따르면 원조의 목표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인류의 공리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